

## 실업 :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sup>1)</sup>

구 용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옮김

94년 초 「월스트리트 저널」의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실업은 전세계에서 증가하고 있을 뿐아니라, 그 전망도 불투명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상실 당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노동력의 약 30%가 실업 상태에 있거나 반실업상태에 있다. 국제노동기구 집행위원장인 알리 타키(Ali Taqi)는 1억2천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고, 7억 명이 반실업상태에 있다고 말하였다.”(『월스트리트 저널』 1994년 2월 8일)

『비즈니스 위크』 또한 몇 달 전에, 실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아니라, 그것이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비명을 질렀다. 책 전면에 굵은 글씨로 된 권두논문의 제목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이었는데, 그 글은 계속하여 “미국 등 산업국가들은 왜 보다 급성장하지 못하는가? 실업률이 높고, 직업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993년 8월 2일).

심각한 실업위기는 94년 3월 14일에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직업에 관한 국제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였는데, 그 회의에는 G-7(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미국)의 재무장관, 경제장관, 노동장관이 참석하였다. 이 국제회의에는 보통 재정 및 경제 분야의 내각 성원이 참석하였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노동장관이 참석했다. 놀랄 것도 별로 없지만, 이 회의에서는 중요한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사실과, 그 회의가 실업문제를 공개화시켰다는 사실은, 산업국가들에게는 관계적인 것 이상의 경제적 긴장이 문제로 되고 있

1) Monthly Review, December 1994

---

음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은 그 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 실업은 오늘날 서방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안보문제인데, G-7은 그것을 단순하게만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전 체계는 스스로 붕괴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뉴욕 타임즈』, 1994년 3월 14일).

자본이 취업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실업자라는 예비군을 만들어 내고 또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세계 인구가 시장에 비해 과잉상태에 있다는 인식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직업이 없거나 반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뿐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소한 정치적 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이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인식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배집단은 과도한 실업이 정치적 안정에 유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적은 실업은 더 나쁜 경제적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침체로부터 회복되면서 직업이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고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금융계에 비상벨을 울리게 하였다. 미국무성 증권을 위시한 각종 증권의 가격이 3개월 동안 떨어지면서, 거대 은행신용회사(Bankers' Trust Company) 및 투기꾼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이들은 부채가 많을 뿐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투기를 일삼고 있었다. “자금(즉, 투기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부은행에 대한 염려 때문에”, 3월 초에 “이미 재무성 및 연방준비제도의 은행조절장치들은 ‘손실회피양식’이라는 것에 관여하고 있었다.”(『월스트리트 저널』, 1994년 5월 20일).

실업률이 약간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이 모든 것을 잠깐 상상해 보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침체와, 투기적이고 허약한 금융시장의 역할 증대, 그리고 고도의 경제적 세계화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인 오늘날에는 과거에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단계와 함께, 너무 적은 실업의 위험성에 대한 새롭고 융통성 있는 이데올로기, 즉 은행가들과 금융 조작자들, 그리고 관련 정부관리들에 적합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출현하게 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념을 유사과학으로 치장하였다.

과잉생산과 실업은 나쁜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경제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인식이 고전 정치경제학의 초기 단계부터 계속 유지

되어 왔다. 그것은 정부가 화폐체계를 잘못 조작했기 때문이거나, 가격과 임금이 정상  
을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자라면 더 나은 재무장관을 필요로 함으로  
써, 후자라면 임금율을 하락시킴으로써, 경제의 균형과 어느 정도의 완전고용에 복귀  
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에 케인즈는 학계에 새로운 생각을 근본적으로 제기하였  
다. 실업은 유효수요의 부족에 기인하는데, 정부가 유효수요의 증가를 준비하면, 경제  
와 고용은 본래대로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경제학의 새로운 정통학설은 이  
러한 사고에서 180도 전환하였다. 다수의 실업이 경제가 균형상태에 있기 위한 필요조  
건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실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될  
것이고, 금융시장은 붕괴될 것이며, 기타의 모든 재앙이 닥칠 것이다. 미국경제협회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8차 연례회의의 의장 연설(『*American  
Economic Review*』, 1968년 3월)에서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새로운 정  
통학설을 위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내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경제학과 경영계의  
숙어가 되었다. 그는 “실업의 자연율”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그것은 경제구조의 일  
부가 된 비율을 의미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균형상태로부터의 이탈을 결과하는 정부의 개입 및 기타의 요소들은 실업  
률을 자연율로 복귀하게 할 경제의 대응고리를 끊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부르조아 이데올로  
기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실재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  
다면, 그리고 높은 실업이 전후 시기 전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면, 그것은 실업의 자  
연율이라는 말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어느 정도가 자연적인가 라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을 때도 실업이  
수직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공식적인 실업률  
이 3~4%(항상 줄여서 말하는 것이지만)라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한편, 1970년 이후  
공식적인 실업률은 4.9%~9.7%에 분포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른바 실업의 자연율이 새로운 수준으로 뛰어 올랐는가? 학구적인 출판물들은 실업  
의 자연율이 6.2% 또는 6.5%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계량경제학적인 과정을  
내용의 일부로 하고 있다. 좀 더 자유주의적인 대통령 직속의 경제자문회의(Council of  
Economic Advisors)는 자연율이 5.9%~6.3%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적인 듯한 연구를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그들은 인구의 변화가  
자연율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  
른다. 그래서, 흑인과 청년, 그리고 여성들 사이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들 중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전화되면 될수록 자연적인 실업률은 보다 높아  
지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인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노동력 구성에서의 변화는 실업의 자연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가진 집단이 노동력 구성에서 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분석은 여성과 청년의 다수가 노동시장에 진입한 60년대와 70년대에 자연율이 증가하였다고 믿고 있다”(Stuart E. Weiner, “실업의 자연율에 대한 새로운 추정”,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Economic Review*, 1993년 4/4분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구직자들에게는 충분한 직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 직업을 얻지 못하여 실업자의 수를 부풀리는 사람들은 가장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구직자들이 25세 이상의 백인 남성이라면, 실업은 거의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출판물에 실린 어떤 특별한 논문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상식에 대하여 비평하려고 한다. 이것은 풋내기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비행기를 운전하고, 여성이 복잡한 생산기계를 조작하고, 흑인과 아시아 계가 입대하거나 배를 건조하거나 비행기를 제작한 제2차세계 대전 시기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한 상식이다. 그렇다, ‘어리석은 것은’ 노동 공급의 구성이 아니라, 바로 ‘경제이다’.

마찬가지로 너무 적은 실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난센스다. 공식적인 정책의 지침이고, 금융시장에서 모든 판단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개념이 구체적인 사실들 앞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잠깐 지적해 보자. 1960년대에 평균적인 연간 실업률은 4.4% 였는데, 소비자물가는 1년에 3%씩 상승하였다. 자연율이라는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가격상승에서의 감소를 결과해야만 한다. 그런데, 실업은 그 다음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여 공식적인 1년 평균 증가율이 6.2%였다. 그러나, 가격은 1년에 평균 7.2%씩 상승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이 그 이론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후 10년의 양상도 마찬가지로 자연율 이론과 모순 하였는데,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격과 더불어 실업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의 뿌리라 가정된 임금은 실제로 그 시기를 통틀어 감소하였다. 비농업 민간산업에서의 평균 실질 주급은 1969년에 300달러였는데(1982년의 달러 가치로 환산), 1990년에는 264.22달러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들이 ① 높은 수준의 실업은 실업을 당할 우려가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의 전화에 기인한다는 논리와, ② 인플레이션 가속화의 주요한 원인은 공급이 부족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인상이라는 논리를 방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후자는 인과관계가 전도된 것인 반면에, 전자는 시장경제가 직업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

였다는 사실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는 연막에 불과하다. 나선형의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가격이 임금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승하는 가격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임금투쟁이 발생한다. 더욱이, 이러한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혼합물은 우리들이 독점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뿐아니라, 거대 회사들이 가격과 이윤, 그리고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동들이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엔화의 상승으로 미국에 수입된 일본 자동차가 좀 더 비싸게 팔리게 되었을 때인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라. 일본의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끊임없이 통렬하게 불평하던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인 빅 쓰리(Big Three)는 곧 바로 국내 출고 가격을 올릴 기회를 포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엔고 시기에 또 다시 발생하였다. 알루미늄 가격을 끌어올린 카르텔과 유사한 최근의 담합은 훨씬 더 충격적이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러시아 사람들은 알루미늄 용광로 증남는 것을 국제시장에 범람시켰다. 재고품은 늘어나고, 1차 알루미늄 가격은 1990년 9월에 1파운드 당 약 93센트에서 1993년 9월의 1파운드 당 58센트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거대 알루미늄 회사들의 이익은 손실로 반전되었다. 그 거인들이 위협해지자, 국가권력들은 허약한 국가들에 적용하는 자유시장 원칙과는 아주 다르게 행동하였다. 주요 알루미늄 생산국들(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협상단들은 1993년 10월에 모스크바에서 만나, 1년에 2억 톤으로 알루미늄 생산을 감소시킬 것과, 세계의 알루미늄 공급 및 가격을 감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월스트리트 저널』 1994년 6월 9일). 그와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알루미늄 가격은 1994년의 처음 5개월 동안에 38% 상승하였다.

독점 기업들만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상품에 대한 매점매식 및 헤지 펀드(hedge fund ; 개인 자금을 투기적으로 운용하는 유한책임의 투자 신탁 조합)도 유효한 역할을 한다. 은행조차 자기 본분을 다한다. “왜 은행들은 철을 갖고 장난을 치는가? 현물시장에서 구매함과 동시에 1년만에 높은 판매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그들은 상당한 이익을 바라고 있다. 그것은 상당한 이익을 위해서는 철의 많은 재고가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이코노미스트』 1994년 5월 21일). 독점자본이나 금융 투기꾼들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하는 역할은 정책자문관들의 계량경제학적 모델에도 들어가지 않을 뿐아니라 중심적인 은행가들의 결정에서도 참작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실업이 자연을 이하로 떨어질 때 위험이 닥쳐오는데, 자연윤은 불가피하게 나선형의 인플레이션을 시작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에는 이 글의 처음에 국제노동기구의 최근 보고서에서 인용한 사실에 대한 인식(그에 대한 설명은 말할 것도 없고)이 빠져 있는데, 그 보고서는 현재 1억 2천만 명의 실업자와 7억 명의 반실업자(총 8억 2천만 명의 사람)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한다. 왜

---

이 체제는 막대한 비율의 세계 인구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었는가?

이 질문에 답변할 때 자본주의는 직업 지향의 경제체계가 아닐 뿐아니라,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직업의 창출은 전체 체계의 추진력인 자본 축적의 부산물일 뿐이다. 어떤 역사적 상황들은 직업창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다(다른 것은 그렇지 않지만). 현대 자본주의 역사(대충 최근의 250년)는 그들이 속한 범주에 따라 도식적으로 몇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 :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까지. 기본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짐. 직업창출에 유리.

제2기 : 20세기 초 까지. 경기후퇴 시기인데, 1930년대의 대공황에서 절정에 이르렀을 뿐아니라, 1차세계대전 및 전후 붐에 의해 중지되었음. 직업창출에 가장 불리.

제3기 : 1945-1975. 열전(熱戰) 및 냉전(冷戰)의 시기. 직업창출에 유리.

제4기 : 1975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열전의 종식. 냉전의 점진적 진정과 그것의 종식. 직업창출에 불리.

직업창출에 있어서 두 시기는 유리하였고 두 시기는 불리하였다. 변화한 것은 경제 체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체계가 작동하는 역사적 상황이다. 거대한 변화-산업혁명, 주요 전쟁 시기의 개시-는 가속적인 팽창을 야기하였다. 점차적으로 자극이 사라짐에 따라, 팽창은 진정되어 침체로 전환되었다.

우리들은 현재 제4기, 즉 주요 전쟁들의 종식으로 시작된 침체의 시기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위에서 인용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의 냉혹한 발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다.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자본주의는 나쁜 시기들 중 하나를 경과하고 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를 뿐아니라, 그것을 추측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우리들이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쟁은 계속 존재할 것이지만, 주요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전쟁은 조만간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산업혁명에 관하여 말하면,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산업혁명, 즉 전자/지식/정보 혁명의 와중에 있다고 말한다. 그 사실이나 그것의 중요성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지만, 초기의 산업혁명과의 유사성 등은 전체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초기의 산업혁명은 막대한 양의 자본투자를 포함하였고, 현대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존재하게 하였다. 오늘날의 산업혁명-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말한다면-은 정반대가 아니라, 그와 동일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자본투자를 포함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창출한 것보다 더 많은 직업을 파괴할 것이다.

그런데,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그러한 침체가 반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순환은 호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환상이나, 자포자기의 정치가들이 과거의 훌륭했던 시기를 회복할 마술적인 공식을 생각해 낼 것이라는 환상이 지속되고 있다. 직업을 창출할 자본의 능력이 협소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정부를 통하여 행동하고 있는 사회 집단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백한 진실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은 현실에 결연히 맞설 때이다.